

제2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20년 2월 24일 (월) 오전 10시

제2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

(10시 03분 개식)

지금부터 제24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순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홍순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 격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추적관리 단계를 넘어 지역 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됐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대구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도 합니다.

개학이 며칠 연기는 되었지만, 개학 시즌에 복귀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탁구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 등은 감염병 차단 노력을 무위로 만들어버리지 않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2 (제246회-개회식)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서민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며칠 전부터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가 격리 대상자 수가 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며칠이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11일간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회를 감염병 대응의 중대 고비에 집행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회기를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고 주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엄중한 국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여러분 곁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과 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폐식)